

## 당송 示兒詩에 나타난 중국시인들의 자식교육\*

주 기 평\*\*

<目次>

I. 시작하며	IV. 당송 示兒詩에 나타난 교육의 방법
II. 당대 이전 示兒詩의 현황과 특징	V. 맺으며
III. 당송 示兒詩에 나타난 교육의 목적과 내용	

### I. 시작하며

전통시기 중국에서는 ‘誡子’, ‘示子’, ‘示兒’, ‘家書’, ‘家訓’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식이나 후손들에 대한 교육을 행해왔는데, 그 세부적인 방법과 형식은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왔다. 즉 漢代에서 魏晉南北朝代까지는 주로 ‘警戒’에 중점을 둔 서간체의 散文이 주를 이루었으니,<sup>1)</sup> 그 결과 北周에서 隋代에 이르러서는 ‘立身’, ‘處世’, ‘學習’ 등을 포괄하는 顏之推의 《顏氏家訓》과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저작서가 출현하였다. 唐代 이후에는 시 양식의 발전과 흥성에 따라 시를 통한 교육이 성행하게 되어 많은 示兒詩나 教子詩의 창작으로 이어졌으며, 明清代에는 송대에 성행한

\* 이 논문의 게재료는 2015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간접비재원에서 지원받은 것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1) 西漢 孔藏 <戒子琳書>, 劉向 <戒子歆書>, 東漢 馬援 <戒兄子嚴敦書>, 鄭玄 <戒子益恩書>, 三國 蜀 諸葛亮 <戒子書>, 西晉 杜預 <家戒>, 南朝 齊 王僧虔 <戒子書> 등.

짧은 가훈류의 전통을 이어<sup>2)</sup> 書信을 통한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sup>3)</sup>

示兒詩는 자식이나 자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의 형식을 통해 사회적 통념이나 시인의 개인적 가치관에 근거한 올바른 삶의 가치와 방식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만 자식에 대한 경계나 권면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른바 教子詩나 責子詩와는 또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즉 시아시에는 이외에도 자식에 대한 애정 표현이나 가문과 시국에 대한 감회, 자신의 문학과 인생관에 대한 피력 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위나 선언적 의미에 있어서의 권고나 질책이 아닌, 자식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올바른 삶의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지시하며 아울러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모델로서 자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아시는 자식에 대한 교육이면서 또한 시인 자신에 대한 반성과 면려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자식에 대한 교육은 비록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있어왔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역대 시아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당송 시인들의 시아시를 통해 여기에 나타난 중국시인들의 자식교육의 양상과 그 표현상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 范仲淹 <義莊規矩>, 陸游 <放翁家訓>, 朱熹 <朱子家訓> 등.

3) 明 朱用純 <朱柏廬治家格言>, 清 鄭燮 <灑縣署中寄舍弟墨書>, 彭端淑 <爲學一首示子姪>, 曾國藩 <曾國藩家書教子書>, 梁啟超 <教子家書> 등.

4) 示兒詩는 좁은 의미에서는 자식을 그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면서 제목에서 ‘示’나 ‘教’, ‘誡’ 등의 표현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教子詩나 責子詩와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으며, 실제 중국에서는 많은 경우 그 명확한 범위나 개념규정 없이 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다만 자식뿐 아니라 자손과 족손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제목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 뿐 아니라 비록 제목을 통해 밝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성장 및 학습 과정과 관련된 감회를 나타내고 있는 시 또한 시아시로 포괄하였다. 이는 본고의 고찰 목적인 자식교육에 대한 시인의 가치와 지향, 자식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의 특징과 그 원인 등이 이를 통해 보다 전면적이며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송 이전 시아시의 작시 현황과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당송 시인들의 자식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교육의 방법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이전 시기 시아시와 당송 시아시의 계승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당대 이전 示兒詩의 현황과 특징

시를 통한 자식의 교육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보이니, 西漢代에 이미 韋玄成의 <誠子孫>시와 東方朔의 <誠子>시가 전하고 있다. 이후에도 西晉 潘岳의 <家風>시와 東晉 陶潛의 <命子>, <責子>시 등이 전하기는 하지만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시의 형식 또한 도잠의 <責子>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사언시로서,<sup>5)</sup> 오언시의 형식이 이미 정립된 위진남북조 시기에도 시의 형식을 통한 자식의 교육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이 시기 시아시는 유가적 덕목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식이나 자손들에 대한 일신의 경계나 무능하고 나태함을 질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가풍에 대한 자부와 함께 이것의 계승과 발양에 대한 당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서 도잠의 <責子>시와 <命子>시의 일부를 예로 든다.<sup>7)</sup>

陶潛 <責子> (아들들을 나무라며)

白髮被兩鬢,      백발은 두 귀밑머리를 덮고  
肌膚不復實.      피부는 더 이상 실하지 않네.

5) 韋玄成의 <誠子孫>시는 4언 56구이며, 東方朔의 <誠子>시는 4언 24구, 潘岳의 <家風>시는 4언 14구, 陶潛의 <命子>시는 4언 8구씩 총 10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6) 遼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中華書局, 1983에 수록된 시 중 南北朝代의 示兒詩는 한 수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7) 이하 인용된 시의 원문은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에서 인용하였다.

雖有五男兒,	비록 다섯 남자 아이가 있기는 하나
總不好紙筆.	모두가 글공부를 좋아하지 않네.
阿舒已二八,	阿舒는 이미 열여섯 살임에도
懶惰故無匹.	게으르고 나태하기가 짝이 없고,
阿宣行志學,	阿宣은 배움에 뜻을 두었다 하지만
而不愛文術.	시문과 경술을 좋아하지 않네.
雍端年十三,	阿雍과 阿端은 열세 살임에도
不識六與七.	6과 7도 알지 못하고
通子垂九齡,	阿通은 아홉 살이 되도록
但覓梨與栗.	배와 밤만 찾고 있구나.
天運苟如此,	하늘의 운명이 그저 이와 같으니
且進杯中物.	또한 술잔의 술이나 마신다네.

陶潛 <命子> (아들에게 자를 지어주며)

(一)

悠悠我祖,	아득한 우리 조상은
爰自陶唐.	요임금으로부터 시작되었나니
邈焉虞賓,	멀리는 순임금의 빈객이었고
歷世重光.	역대로 거듭 빛났었네.
御龍勤夏,	어룡씨는 하나라에 봉사했고
豸韋翼商.	시위씨는 상나라를 도왔나니,
穆穆司徒,	훌륭하신 사도 陶叔 시기에
厥族以昌.	우리 가문은 번창하였네.

(八)

卜云嘉日,	거북점에서 좋은 날을 말하고
占亦良時.	점에서도 좋은 때였구나.
名汝曰儼,	너의 이름을 儼이라 하고
字汝求思.	너의 자를 求思라 하였도다.
溫恭朝夕,	아침저녁으로 온화하고 공손하며
念茲在茲.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처하며,
尙想孔伋,	항상 子思를 생각하고
庶其企而.	힘써 그 뒤를 따르기를 바라노라.

<責子>시는 義熙 4년(408) 도잠이 44세 때 쓴 것으로, 학문에 뜻을 두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무능함과 식탐만을 가진 다섯 아들들을 하나 하나 들어가며 질책하고 있다. 자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전편에 걸쳐 책망과 한탄만 있을 뿐 경계나 권면과 같은 교육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니, 당대 역시 많은 시아시를 썼던 두보는 <遣興 五首(其三)>에서 도잠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sup>8)</sup> 그러나 도잠에게 있어 자식은 다만 질책의 대상만은 아니었으니, 義熙 8년(412) 성년이 된 장자 陶儼의 자를 지어주며 쓴 <命子>시에서는 가문에 대한 자부와 자식에 대한 사랑, 인성과 품덕에 대한 교육과 당부가 나타나 있다. 시는 4언 8구씩 총 10장의 장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6장까지는 요순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역대 선조들의 공업과 가문의 영예를 말하고 있다. 이어 제7장에서는 도업을 얻었을 때의 기쁨을 나타내고, 제8장에서는 도업의 자를 ‘求思’라 지은 까닭을 말하며 온화함과 공손함을 바탕으로 子思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다시금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마지막 제10장에서는 근면성실함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의 潘岳의 <家風>시는 비록 그 대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孝悌를 중시하는 가풍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자손들에게 보인 시로 여겨진다.

潘岳 <家風> (가풍)  
縮髮縮髮, 머리 묶어

8) 杜甫는 <遣興 五首(其三)>에서 “도잠은 세상을 피해 은거한 노인이지만 반드시 도에 통달한 것은 아니었으리. 그가 쓴 시집을 보면 곤궁함을 한탄하는 것이 매우 많다네. 생에 통달함이 어찌 충분했다 할 수 있으리, 말없이 깨닫는 경지에는 아마도 이르지 못하였네. 자식이 있으면 어질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나니 어찌 가슴 속에 간직하였단 말인가?(陶潛避俗翁, 未必能達道. 觀其著詩集, 頗亦恨枯槁. 達生豈是足, 默識蓋不早. 有子賢與愚, 何其掛懷抱)”라 하며 도잠이 가난에 달관하지 못한 것과 타고난 자식의 자질과 운명에 초연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髮亦鬢止.	머리카락 상투 틀고서는
日祇日祇,	날마다 공손하며
敬亦慎止.	공경하고 삼가나니,
靡專靡有,	오로지 이 한 몸
受之父母.	부모에게 받은 것이네.
鳴鶴匪和,	우는 학에 화답하지 못하고
析薪弗荷.	가뭇을 계승하지 못하니
隱憂孔疚,	깊은 시름 커다란 자책만이
我堂靡構.	내 집에 가득하네.
義方既訓,	법도로써 훈계하여
家道穎穎.	집안의 도가 융성하였나니
豈敢荒寧,	어찌 감히 나태할 수 있으리?
一日三省.	하루에도 세 번 반성한다네.

반약은 이 시에서 성인이 된 이후 유가적 법도를 중시하는 가풍을 받들어 孝悌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며 앞서 도잠의 <命子>시에서와 같이 가문의 빛나는 전통을 찬미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면려와 정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반약과 도잠의 시아시에서 모두 영예로운 가풍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자손들에게 이것의 계승과 발양을 위한 올바른 덕성과 품성의 함양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공업의 수립이나 입신양명을 통한 부귀영달의 추구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 Ⅲ. 당송 示兒詩에 나타난 교육의 목적과 내용

唐宋代에 들어와 근체시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시아시의 창작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唐代 王梵志와 李白, 杜甫, 劉長卿, 韓愈, 白居易, 李商隱 등을 비롯하여 宋代 歐陽修와 蘇軾, 陸游, 朱熹, 辛棄疾 등 많은 시인들이 자식에 대한 경계와 권면 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문학적 지향 등을 시아시를 통해 나타냄으로써 시는 자식교육의 주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sup>9)</sup> 그러나 당대와 송대는 또한 시아시의 주된 내용과 그 속에 담겨진 교육의 목적 및 교육의 방법 등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 당송 시아시의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당대 시아시는 孟浩然이 <한사마를 따라 서군으로 들어가는 막씨 조카와 여러 형제들을 전송하며(送莫氏甥兼諸昆弟從韓司馬入西軍)>에서 “웅대한 뜻은 기러기를 삼키고, 멀리 향하는 마음은 형제들과 함께 한다네.”라<sup>10)</sup> 하며 큰 뜻을 지니고 종군하는 조카와 형제들을 축원하고, 李白이 <종군하는 조카 정관을 보내며 3수(送外甥鄭灌從軍三首)>에서 “장부라면 목숨을 걸고 천자에게 보답해야 하니, 마땅히 오랑캐 머리를 베고 금의환향해야 하리.”<sup>11)</sup>, “오랑캐 격파하며 반드시 《용도》의 책략을 써야 하리니, 쌓인 갑옷이 웅이산 만큼 높으리라.”<sup>12)</sup>, “오랑캐 벤 피로 황하의 물은 변하고, 잘린 머리는 흰 까치 깃발에 걸려 있으리.”라<sup>13)</sup> 하며 조카 정관이 공업을 세우고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처럼, 공명의식의 고양과 입신양명의 강조가 그 주된 내용이자 목적이었다.<sup>14)</sup> 杜牧 또한 <동지일에 조카 아의에게 보내다(冬至日寄小姪阿宜)>에서 이제 막 글공부를 시작한 조카를 권면하며 “네가 부귀해지고 오래도록 장수하기를 축원하나니, ... 네가 문밖

9) 두보는 시체에 ‘보이다[示]’라는 글자를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이후 ‘示兒詩’ 또는 ‘示子詩’가 중국 시가의 정식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10) ‘壯志吞鴻鵠, 遙心伴鶴鷄’, <送莫氏甥兼諸昆弟從韓司馬入西軍>

11) ‘丈夫賭命報天子, 當斬胡頭衣錦廻’, <送外甥鄭灌從軍三首> 其一

12) ‘破胡必用龍韜策, 積甲應將熊耳齊’, <送外甥鄭灌從軍三首> 其二

13) ‘斬胡血變黃河水, 梟首當懸白鵠旗’, <送外甥鄭灌從軍三首> 其三

14) 시아시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자식들이 언급되고 있는 이백의 또 다른 시 <남릉에서 아이들과 이별하고 도성으로 들어가다(南陵別兒童入京)>에서도 “하늘 우러러 크게 웃으며 문을 나서 떠나가니, 나 같은 이가 어찌 초야에 있을 사람이던가?(仰天大笑出門去, 我輩豈是蓬蒿人)”라 하며 공명의식을 바탕으로 한림공봉에 천거되어 장안으로 들어가는 기쁨과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으로 나가서는 양떼를 몰 듯 쉽게 관직 연기를 바라노라.”라 하며 공업수  
 립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었는데,<sup>15)</sup> 다음의 韓愈의 <示兒>시는 이러한 당  
 대 시아시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韓愈 <示兒> (아이들에게 보이다)

始我来京師,	처음 내가 도성에 왔을 때
止攜一束書.	다만 책 한 묶음 들고 있었지.
辛勤三十年,	삼십 년을 고생하다
以有此屋廬.	이 집이 있게 되었네.
此屋豈為華,	이 집이 어찌 화려하라만
於我自有餘.	내게는 과분할 따름이라네.
中堂高且新,	중당은 높고 새로워
四時登牢蔬.	사철마다 제물을 올리고
前榮饌賓親,	처마 앞에서 빈객 친지들 접대하고
冠婚之所於.	관혼의 예식도 여기에서 한다네.

.....

開門問誰來,	문 열어 누가 오는지 묻나니
無非卿大夫.	공경대부 아닌 사람이 없으며,
不知官高卑,	관직이 높고 낮은지 알지는 못하나
玉帶懸金魚.	옥대에는 황금물고기 부절이 걸려 있네.
問客之所為,	문객들이 하는 것은
峩冠講唐虞.	고상하게 요순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酒食罷無爲,	술과 음식 자리가 끝나 할 일이 없으면
棋槩以相娛.	바둑과 박혁으로 즐긴다네.
凡此座中人,	이 좌중의 사람들 중
十九持鈞樞.	열에 아홉은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다네.

.....

嗟我不修飾,	아! 내가 닦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事與庸人俱.	일이 보통 사람들과 같았을 터,
安能坐如此,	어찌 이처럼 앉아서

15) ‘祝爾願爾貴，仍且壽命長。…願爾出門去，取官如驅羊’，<冬至日寄小姪阿宜>

比肩於朝儒.     조정의 선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으리?  
 詩以示兒曹,     시로써 아이들에게 보이나니  
 其無迷厥初.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말지어다.

전체가 50구로 되어 있는 장편의 이 시에서 한유는 30년 만에 새로 집을 장만하게 된 기쁨을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교유하는 이들이 모두가 지체 높은 가문의 고관대작들임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단련하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없었음을 말하며 자식들에게 부귀공명을 위한 부단한 정진과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즉 한유에게 있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귀공명과 입신양명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송대 蘇軾은 “보인 것이 모두가 이록의 일이다.”라<sup>16)</sup> 하며 비판하였고 鄧肅 또한 “옥대와 황금물고기 부신의 말을 가지고 격려하였으니, 자식을 사랑하는 정은 지극하나 자식을 인도하는 뜻은 비루하다.”라<sup>17)</sup> 하며 그 목적과 내용의 천박함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명 의식을 보다 중시했었기에 당인들의 시아시에서는 두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시기 반악이나 도잠의 시아시에서와 같은 덕성과 품성에 대한 교육, 가풍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것의 계승과 발양과 같은 소명의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두보는 당인들 중 가장 많은 총 6수의 시아시를 남기고 있는데,<sup>18)</sup> 그 교육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일반적인 당인들과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면서도 또한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시험을 통한 관직진출을 목적으로 《文選》과 유가경전의 학습을 중시하는 등 그 실용적인 목적을 견지하면서도, 충효인의에 기초한 유가적 덕목을 강조하고 조상의 공덕을 기리며 가업의 계승을 당부하는 등<sup>19)</sup> 위진 이래의 시아시의 전통을 계승하

16) ‘所示皆利祿事也’ 胡仔, <韓吏部上>, 《苕溪漁隱叢話》 前集 권15.

17) ‘用玉臺金魚之說以激之, 愛子之情至矣, 而導子之志則陋矣’ 鄧肅, <跋陳了翁諫議書邵堯夫誠子文>, 《栢欄集》 권19.

18) <熟食日示宗文宗武>, <又示兩兒>, <元日示宗武>, <元日示宗武>, <催宗文樹雞柵>, <宗武生日>

고 있다. 둘째 아들 宗武에게 쓴 다음의 두 시에서는 曾參과 子游 등 유가의 현인들을 추송하고, 《文選》에 정통했던 가풍에 대한 자부심과 이것의 계승에 대한 당부가 나타나 있다.

杜甫 <又示宗武> (또 종무에게 보이다)

覓句新知律,	구를 찾아 새로 운율을 알고
攤書解滿床.	책을 펼쳐 침상 가득 늘어놓았구나.
試吟青玉案,	푸른 옥소반 같은 옛 시를 음송하되
莫羨紫羅囊.	자색 비단 향주머니 같은 노리개를 부러워하지 말라.
暇日從時飲,	한가한 날에 때에 따라 술 마시면
明年共我長.	이듬해는 나와 함께 성장하게 되리니.
應須飽經術,	마땅히 經術을 충분히 익혀
已似愛文章.	시문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해야 하리니.
十五男兒志,	십오 세 남아 뜻을 세움에
三千弟子行.	삼천 제자의 행동이어야 하니,
曾參與遊夏,	曾參과 子游, 子夏는
達者得升堂.	통달하여 당에 오른 사람이다.

杜甫 <宗武生日> (종무 생일에)

小子何時見,	작은 아이를 언제나 만날까?
高秋此日生.	가을의 절정인 이날 태어났구나.
自從都邑語,	成都에서 말할 때부터
已伴老夫名.	이미 아버와 이름을 같이 하였구나.
詩是吾家事,	시는 우리 집안의 일이니
人傳世上情.	사람들이 이를 전하는 것은 세상의 정이라.
熟精文選理,	《文選》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休覓彩衣輕.	채색 옷의 경박함을 추구하지는 말지니.

.....

- 19) 두보 시아시의 자식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크게 ‘忠孝仁義에 기초한 유가적 덕목의 선양’과 ‘조상의 공덕과 가업의 계승’, ‘실용적 학습을 통한 立身揚名의 실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杜甫 示兒詩 研究>, 《中國文學》 82집, 2015.2, 81쪽 참조.

두보는 <又示宗武>에서 종무에게 古詩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며 유가의 經術을 익혀 효와 문학에 뛰어났던 曾參과 子游, 子夏를 본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앞의 <元日示宗武> 시에서 두보는 “너는 내 손이 떨어져 울지만 나는 네가 성장해서 웃는다.”<sup>20)</sup> “강동의 형제를 만날 수 없으니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몇 줄기 눈물 흘린다.”<sup>21)</sup>라 하며 부자지간의 慈孝와 형제간의 友愛를 강조하였는데, 이어 이 시에서는 효와 문학을 말하며 자식이 덕성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일반적인 당인들이 공명의식과 일신의 부귀영달을 강조했던 것과는 구별되고 있다. 또한 <宗武生日>에서는 종무가 시에 뛰어나 이미 자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칭찬하고 시와 《文選》에 뛰어났던 가풍을 말하며 자부심을 나타냄으로써, 역시 가풍의 계승과 발양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일반적인 당인들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sup>22)</sup>

반면 송대 시인들의 경우 자식의 공명수립이나 입신양명보다는 인성과 덕성의 함양을 보다 중시하였으며, 설령 이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당대와 같이 개인의 부귀영달에 있지는 않았다. 아울러 당대에 들어와 다소 약화되었던 가풍의 계승과 발양에 대한 당부가 다시금 강화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의 王洋의 시와 辛棄疾의 사에는 자녀 교육에 인성과 덕성을 중시했던 송대 시아시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王洋 <和伯氏示兒姪> (화씨에 화답하여 아이와 조카에게 보이다)  
 屋僻唯宜靜,      집은 후미져 오직 고요하기만 하고  
 權疏巧受寒.      창살은 부서져 오롯이 추위를 받아들이네.

20) ‘汝啼吾手戰, 吾笑汝身長’ <元日示宗武>

21) ‘不見江東弟, 高歌淚數行’ <元日示宗武>

22) 杜牧의 <冬至日寄小姪阿宜>에서는 “우리 가문은 공경재상의 집안으로 일찍이 칼과 패옥소리 울렸나니, 옛 집은 붉은 대문 열어 둔 채 장안성 한가운데 있었고, 집에는 다른 것 하나 없이 만 권의 책이 방 안 가득했었네.(我家公相家, 劍珮嘗丁當. 舊第開朱門, 長安城中央. 第中無一物, 萬卷書滿堂)”라 하며 가문의 전통을 자부하고 있는데, 이는 두보 가문의 거의 유일한 경우라 할 수 있다.

衾光宵獻白, 이불의 빛은 밤이면 흰 빛으로 빛나고  
 爐火晝無丹. 화로의 불은 낮에도 붉은 기운이 없네.  
 潦倒投僧梵, 자유로이 떠돌다 절로 들어감에  
 依稀似宰官. 모습은 재상과 같다네.  
 一錢不停蓄, 돈 한 푼 쌓아두지 않고  
 却喜布囊寬. 오히려 베주머니 넉넉함을 기뻐한다네.

辛棄疾 <最高樓·吾擬乞歸, 犬子以田產未置止我, 賦此罵之> (내가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이놈의 자식이 농사지를 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나를 만류하기에 이를 지어 꾸짖는다)

吾衰矣, 나는 늙었으니  
 須富貴何時. 어느 때 부귀해지리?  
 富貴是危機. 부귀란 위기인 것이네.  
 暫忘設醴抽身去, 穆生은 잠시 단술 차려주는 것 잊어도 몸을 빼어 떠났고  
 未曾得米棄官歸. 陶潛은 쌀 얻으려 하지 않고 관직 버리고 돌아갔나니,  
 穆先生, 陶縣令, 목선생과 도현령은  
 是吾師. 나의 스승이라네.

待菴個, 띠 풀 지붕 이어  
 園兒名佚老. 정원을 '늘그막의 편안함'이라 이름 짓고  
 更作個, 다시 하나 만들어  
 亭兒名亦好. 정자를 '또한 좋다'라 이름 하네.  
 閑飲酒, 醉吟詩, 한가로이 술 마시고 취하여 시 읊조리나니  
 千年換八百主, 천 년 동안 주인이 팔백 번이나 바뀌었다네.  
 一人口插幾張匙. 한 사람 입에 수저 몇 개나 꽂을 수 있으리?  
 便休休, 更說甚, 그만 두자  
 是和非. 다시 무슨 옳고 그름을 말하랴?

왕양의 시에서는 가난 속에서도 여유와 품위를 잃지 않았던 和氏의 성품을 칭송하며 아이와 조카들에게 그를 모범으로 삼아 청빈무욕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신기질의 사 또한 부귀영화의 무상함을 말하며 공경의 예를 갖추지 못한 楚元王을 떠난 목생과 다섯 말 녹봉에 연연해하

지 않고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간 도잠을 예로 들어 이록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옳고 그름의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다음의 蘇軾과 陸游의 시는 자식의 공명수립에 대해 말하고 있다.

蘇軾 <洗兒戲作> (세아회 때 장난삼아 쓰다)

人皆養子望聰明, 사람들은 모두 자식 기르며 총명하길 바라지만  
 我被聰明誤一生. 나는 총명해서 일생이 잘못되었네.  
 惟願孩兒愚且魯, 다만 아이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無災無難到公卿. 재앙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공경에 이르기를 바란다네.

陸游 <僕頃在征西大幕, 登高望關輔, 樂之. 每冀王師拓定, 得卜居焉. 暇日記此意, 以示子孫> (내 잠시 서쪽 막부에 있을 때 높이 올라 관보 땅을 보고 기뻐했었다. 매년 왕의 군대가 정벌할 것을 바라며 땅을 골라 거주했었다. 한가한 날에 이러한 뜻을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보인다)

八月殘暑退, 8월의 남은 더위는 물러가고  
 秋聲滿庭樹. 가을 소리가 정원 나무에 가득하네.  
 豈無四方志, 사방에 공명을 떨치려는 뜻이야 어찌 없겠는가만  
 衰病迫霜露. 쇠약하고 병든 몸에 서리까지 뿔박하네.  
 遼東黃頭奴, 요동 땅 누런 머리의 오랑캐,  
 稔惡天震怒. 악한 생각을 품으니 하늘이 진노하네.  
 南北會當一, 남북 땅 반드시 하나 될 터이지만,  
 老我悲不遇. 늙은 내가 보지 못함이 슬프기만 하네.  
 子孫勉西遷, 자손들이나마 힘써 서쪽으로 나아가  
 俗厚吾所慕. 풍속을 돈후하게 하는 것이 내 바라는 바이네.  
 約已收孤嫠, 고아와 과부도 거두어들이도록 나를 다짐하고  
 教子立門戶. 스스로의 문호를 세우도록 자식들을 가르치네.  
 黍稌暗阡陌, 기장과 벼는 논과 밭에 뿔뿔하고  
 鶉雉足比箸. 메추라기와 꿩은 수저와 젓가락에 가득하네.  
 永爲河渭民, 영원히 河水와 渭水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만  
 勿憚關山路. 변방 길도 꺼리지는 말지어다.

소식의 시는 黃州에 폄적되어 있을 때 넷째 蘇遜을 낳아 태어난 지 사

흘 재 되는 날 아이를 물로 씻어주며 잔치를 벌여 축복해주는 세아회 때 쓴 것으로, 비록 제목에서 ‘장난삼아 썼다[戲作]’라 하고 있으나 아이가 공경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만 한유처럼 부귀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아이가 자신처럼 재난을 겪지 않고 평온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으니, 唐 韋莊이 <勉兒子>에서 “임금께서 재상으로 삼았으니, 어찌 반드시 스승에게 배우기를 기다리리?”라<sup>23)</sup> 하며 자식을 면려하면서도 자식의 재상됨을 자랑스러워했던 것과는 구분된다. 육유의 시에서는 공명수립의 의지로 가득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끝내 실현되지 못한 현실의 좌절과 자신의 노쇠함을 안타까워하고,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변방으로 나아가 중원수복의 꿈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송인들에 있어서의 입신양명은 개인적인 부귀영달이 아닌 시대와 국가에 대한 유가적 사명과 소임의 실현에 다름 아니었으니, 이는 필연적으로 유가적 전통에 바탕을 둔 가풍에 대한 자부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陸游 <示兒> (아이들에게 보이다)

得道如良賈,	도를 닦는 일은 훌륭한 상인이 그리하듯
深藏要若無.	깊이 감추어두고 없는 듯이 해야 하네.
治金寧輒躍,	학문을 도야함이 어찌 단숨에 이루어지리?
韞玉忌輕沽.	옥을 싸 두고 가벼이 팔리는 것을 꺼려야 하네.
儒術今方裂,	유가의 사상이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었으니
吾家學本孤.	우리 집안의 학문은 외롭기만 하도다.
汝曹能念此,	너희들은 이것을 유념하여
努力共枝梧.	노력하여 함께 지켜 나가라.

육유의 위 시에서 유가의 법도를 터득하기 위한 수양과 단련을 강조하면서 이것에 대한 과시나 세속적인 입신양명의 추구를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의 법도가 무너진 현실을 개탄하며 經世濟民 의식을 바탕으로

23) ‘辟疆爲上相, 何必待從師’, <勉兒子>

유가의 법도를 지켜온 집안의 가풍을 말하며 자식들 또한 이를 각인하고 계승 발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宋 蘇頌 또한 일백 운에 달하는 장편의 오언시에서 늙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평생 가풍을 지키며 살았던 자신의 인생역정을 회고하며 자손들로 하여금 이를 계승할 것을 당부하였다.<sup>24)</sup>

청대 趙翼은 앞서 한유의 <示兒>시에 대한 송인들의 비판을 마땅한 것이라 긍정하면서도 자녀의 교육에 있어 이록을 버리고 품행을 중시한 것을 송대 도학자들의 의문으로서 송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라 하였다.<sup>25)</sup> 그러나 사실 송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인성과 덕성의 함양 및 가풍의 전승을 중시하였던 위진 시아시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다만 당대에 다소 약해졌던 전통이 송대에 들어와 다시 흥성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인들은 이뿐만 아니라 시아시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생관과 문학관까지도 함께 담아냄으로써 자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막내아들 자홀에게 쓴 다음의 육유 시에서는 문학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신념이 나타나 있는데, 육유는 이를 통해 자식의 문장이 자구의 단련이나 수식과 같은 외형적인 기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인성의 도야와 심성의 수양에 바탕을 둔 글쓰기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陸游 <示子通> (자홀에게 보이다)

我初學詩日,      내 처음 시를 배울 때에는  
但欲工藻繪.      단지 문사를 아름답게만 하려 했었지.  
中年始稍悟,      중년에 비로소 조금 깨달음이 있어  
漸若窺宏大.      점점 크고 커다란 것이 엿보이는 것 같았노라.

24) <累年告老, 恩旨未俞, 詔領祠宮遂還鄉. 閑燕間無事, 追省平生, 因成感事述懷詩五言一百韻, 示兒孫輩使知遭遇終始之意, 以代家訓故言多不文>, 《蘇魏公文集》 권5.

25) ‘不知舍利祿而專言品行, 此宋以後道學諸儒之論, 宋以前固無此說也’ 錢仲聯 集釋, 《韓昌黎詩繫年集釋》, 상해고적출판사, 1984, 957쪽.

怪奇亦間出,      독특한 구가 또한 간혹 나오니  
 如石漱湍瀨.      마치 돌이 급류에 씻기는 듯.  
 數仞李杜牆,      李白과 杜甫의 담장은 수仞이나 되어  
 常恨欠領會.      항상 깨달음이 부족한 것을 한스러워 하였도다.  
 .....

汝果欲學詩,      네가 진실로 시를 배우고자 한다면  
 工夫在詩外.      공부는 시의 바깥에 있느니라.

당인들의 시아시가 송인들에 비해 덕성의 교육이나 가풍의 계승발양 보다는 개인적인 입신양명에 보다 치중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아시를 남기고 있는 시인들의 출신이나 개인적인 처지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즉 맹호연의 경우 비록 ‘시에서의 은자[詩隱]’로 지칭되지만 40세의 늦은 나이에 녹문산을 내려와 장안에서 관직을 구한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은거는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의 불우함에 말미암은 것이며 그의 본질적인 지향은 세속에서의 공명수립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백 또한 “공명을 일찍이 드러내지 못했으니 역사서에 어찌 이름을 올리리?”<sup>26)</sup>라 하였듯이 공명수립의 강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시 전반에 걸쳐 영웅지향적인 공명의식과 이것의 좌절로 인한 비애와 고독의 표출로 나타나곤 하였다.<sup>27)</sup> 사실 이들의 가문은 그다지 자부할 만한 것이 못되었으니, 이는 빈한한 집안에서 태어나 3세에 고아가 되어 형수 손에서 자랐던 한유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울러 당대에 관료 등용의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과거시험은 문벌귀족 출신이 아닌 일반 사대부들에게 있어 빈천한 가문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관직에 나아가 공명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 자신은 비록 문벌귀족에 의한 추천을 여전히 선호하기는 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교육에 있어 이러한 자신들의

26) ‘功名不著, 竹綿將何宜’ <長歌行>

27) 임도현, 《이백의 자아 추구 양상과 문학적 반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8, 66~70쪽, 133~180쪽 참조.

지향을 바탕으로 자식들의 노력을 통한 공명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현실의 부귀영화를 그 유인책으로 제시하였다 할 수 있다.

#### IV. 당송 示兒詩에 나타난 교육의 방법

당송 시아시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식교육의 목적과 내용뿐 아니라 그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즉 당인의 시아시들이 주로 부형이자 삶의 인도자로서 일방적인 권고와 훈계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송인의 시아시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애정과 친화를 바탕으로 한 감화와 교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杜荀鶴 <題弟侄書堂> (동생과 조카의 글방에 쓰다)

何事居窮道不窮, 어찌하여 궁한 곳에 살면서도 도는 궁하지 않는가?  
 亂時還與靜時同. 혼란한 시기에도 평온한 때와 마찬가지로네.  
 家山雖在干戈地, 고향 땅은 비록 전란 속에 있지만  
 弟侄常修禮樂風. 동생과 조카들은 늘 예악의 풍도를 닦는다네.  
 窗竹影搖書案上, 창외 대나무 그림자는 책상 위에 흔들리고  
 野泉聲入硯池中. 들의 샘물 소리는 연적 안으로 들어온다네.  
 少年辛苦終身事, 젊어서의 노고는 평생의 일이 되나니  
 莫向光陰惰寸功. 세월 향해 한 순간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지니.

唐 杜荀鶴의 시에서는 전란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글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동생과 조카들을 치하하며 학문의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만 부형으로서의 권고만 나타나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과 사랑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송대 시아시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직접적인 애정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 또한 아무런 조건 없는 본연의 감정에 충실한 특징을 보인다.

陳師道 <示三子> (세 아들 딸에게 보이다)

去遠卽相忘,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서로 잊고 있었건만  
 歸近不可忍.      돌아올 날 가까워지니 견딜 수가 없었네.  
 兒女已在眼,      아이들 이미 눈앞에 있건만  
 眉目略不省.      얼굴을 조금도 알아볼 수가 없네.  
 喜極不得語,      기쁨이 극에 달해 말도 할 수 없다가  
 淚盡方一哂.      눈물 다하고서야 비로소 웃음 짓네.  
 了知不是夢.      꿈이 아님을 분명 알건만  
 忽忽心未穩.      심란하여 마음 안정되지 못하네.

陸游 <喜小兒輩到行在> (아이들이 임안에 도착한 것을 기뻐하며)

阿綱學書蚓滿幅,      큰아들이 글씨 배우니 종이에 지렁이가 가득한 듯  
 阿繪學語鶯囀木.      둘째아들이 말 배우니 앵무새가 나무에서 떠들어대는 듯.  
 截竹作馬走不休,      대나무 잘라 말을 만들어 쉴 새 없이 달려 다니고  
 小車駕羊聲陸續.      작은 수레 양으로 끌고 다니며 끊임없이 소리 지르네.  
 書窗澆壁誰忍噴,      창에 낙서하고 벽에 흠분질해도 누가 나무라리,  
 嗚呼也復可憐人.      꾸짖고 혼내려 해도 사랑스럽기만 한 녀석들인 걸.

.....

진사도의 시에서는 헤어진 자식들과 재회한 기쁨을 아버지로서의 체면도 잊어버린 채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육유의 시 또한 사랑과 자애의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아이들에 대한 송인들의 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은 李商隱의 <驕兒詩>에서 아이의 수려함과 총명함을 칭송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아이가 응당 빨리 장성하여 호랑이새끼 찾아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마땅히 만호의 제후가 되어 책이나 지키고 있게 해서는 안 되리.”<sup>28)</sup> 하며 공업수립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송인들은 시아시에서 이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한편, 경계와 훈육을 통한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자상함과 친화력을 바탕

28) ‘兒當速成大, 探雛入虎窟. 當爲萬戶侯, 勿守一經帙’, <驕兒詩>

으로 한 감화와 교화의 교육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구양수는 자식의 박식함을 목적으로 놀이 삼아 卅의 이름을 모아 <急就章> 한 편을 짓기도 하였으며, 소식은 아들들과 어울려 시를 쓰고<sup>29)</sup> 이들의 시에 화답하거나 차운함으로써<sup>30)</sup> 자식들과의 친화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다음에서 소식이 둘째 아들 蘇迨의 시에 차운한 시를 예로 들어본다.

蘇軾 <迨作淮中遇風詩，戲用其韻> (태가 <회구에서 바람을 만나다> 시를 지었는데 장난삼아 그 운을 써서 짓다)

我詩如病驥，	내 시는 병든 말이
悲鳴向衰草。	시든 풀을 향해 슬피 우는 것 같건만，
有兒眞驥子，	우리 아들은 진정 천리마 망아지라서
一噴群馬倒。	숨 한 번 내뿜으면 못 말들이 거꾸러진다네.
養氣勿吟哦，	기를 길러 무병신을 말아야 하며
聲名忌太早。	명성이 너무 이른 것도 꺼려야 하나니.
風濤借筆力，	바람과 파도에서 필력을 빌려오고
勢逐孤雲掃。	기세는 외로운 구름을 쫓아내 쓸어버렸구나.
何如陶家兒，	도연명의 아이가
逸舍覓梨棗。	집안 돌아다니며 배와 대추를 찾던 것에 비해 어떠한가?
君看押強韻，	그대들 보게나, 험운을 쓰는 것이
已勝郊與島。	이미 맹교와 가도보다 낫다네.

소식은 자식의 시를 차운함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극찬의 말로써 그 뛰

29) <與王郎昆仲及兒子邁，繞城觀荷花，登峴山亭，晚入飛英寺。分韻得月明星稀四字>，蘇軾，《蘇軾詩集》 권19，中華書局，1982. 2，985쪽. <夜坐與邁聯句>，같은 책，권21，1125쪽 등.

30) <迨作淮中遇風詩，戲用其韻>，같은 책，권26，1367쪽. <哭王子立，次兒子迨韻三首>，같은 책，권31，1657쪽. <正月二十四日，與兒子邁、賴仙芝、王原秀才、僧曇穎、行全、道士何宗一同游羅道院及棲禪精舍，過作詩，和其韻，寄邁、迨一首>，같은 책，권39，2099쪽 등.

어난 성취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기를 기르고 명성의 추구를 경계할 것을 넘지시 당부하며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소식은 이외에도 편적길에서의 아쉬움과 감회를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토로하는 등<sup>31)</sup> 자식들을 다만 교육의 대상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이자 동료로서 대하고 있는데,<sup>32)</sup> 이러한 모습은 동생 소철의 시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蘇轍 <上巳日久病不出示兒姪> (二首其一) (상사일에 오랜 병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이와 조카에게 보이다)

春氣侵脾久在牀, 봄기운이 비장에 스미건만 오래도록 병석에 있나니  
開門桃李著泥香. 열린 문으로 복사꽃 오얏꽃 흙 묻은 채 향기롭네.  
牛鳴頗覺西湖近, 소 울음소리에 서호 가까이 있음을 문득 깨닫고  
鳳去長憐北樹荒. 봉황 떠나가 북쪽 정자 황량함을 오래도록 안타까워하네.  
欲出老人無伴侶, 나가려 해도 늙은이는 함께 할 짝이 없고  
退歸諸子解農桑. 물러나 돌아와 자식들은 뽕나무 농사를 배운다네.  
南鄰約賣千竿竹, 남쪽 이웃에게 죽간 천 개 팔기로 약속하여  
拄杖穿林看笋長. 지팡이 짚고 숲으로 들어가 죽순 자랐는지 본다네.

소철은 오랜 병으로 인해 상사절임에도 밖으로 나가 즐기지 못하고 헛되이 봄을 보내고 있는 아쉬움을 마치 친구나 동료에게 말하듯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일상의 감정을 진솔하게 자식들과 공유하는 한편, 병중의 몸임에도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팡이 의지하여 숲으로 향하는 자신을 말함으로써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감화의 방식을 통해 신의를 강조하고 있다.

두보의 경우 앞서 자식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실용적 학습을 통한 立身揚名의 실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일반 당인들과 일치하면서도 유가적 덕목의 강조나 가풍의 계승을 강조하는 면에 있

31) <臨城道中作并引>, 같은 책, 권37, 2024쪽. <將至廣州, 用過韻, 寄邁迨二子>, 같은 책, 권44, 2390쪽 등.

32) 소식에게는 蘇邁, 蘇迨, 蘇過, 蘇遜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시로서 칭화하는 것은 주로 蘇邁, 蘇迨, 蘇過 세 아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어 당인들과 구별되었는데,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자애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중시함으로써 당인들보다는 송인들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sup>33)</sup> 이러한 면에 있어 두보의 시아시는 당대에 다소 약화된 위진 시아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다시 송대 시아시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맺으며

중국에서 시의 형식을 통해 자식을 교육하는 이른바 ‘示兒詩’의 전통은 이미 西漢代부터 있어왔지만 당 이전의 시아시는 현재 전하고 있는 작품이 많지 않아 이를 통해 자식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현전하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고찰하면 그 중점은 유가적 도의에 바탕을 둔 올바른 덕성과 품성의 함양에 있었으며, 자식에 대한 견책과 권면의 방식을 통해 가풍의 계승과 발양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시아시의 이러한 전통은 魏晉代에 이미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에 들어서는 위진 시기와는 달리 교육의 목적이 개인적 부귀영달을 위한 공명의식의 고양과 입신양명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방식 또한 주로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권고와 훈계의 방식을 차용하였다. 송대에 들어와 시아시는 덕성과 품성의 함양 및 가풍의 계승과 발양을 강조하며 당대에 다소 약화되었던 위진 시아시의 전통이 다시 이어지게 된다. 송인들은 비록 당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명수립과 입신양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배경에는 당대와 같은 부귀영달의 추구가 아닌 도학자로서의 본분과 시대적 소임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아울러 교육의 방식

33) 두보 시아시의 자식교육의 방법은 ‘慈愛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개인의 자질에 따른 맞춤형 교육’,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참고, 앞의 논문, 88쪽 참조.

또한 애정과 친화를 바탕으로 한 감화와 교화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일방적인 교육자 내지는 훈계자로서가 아닌 인생의 동료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그 교육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 시아시 전통의 연변과정에 있어 두보는 비록 자식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일반 당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송인들과 오히려 유사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위진대에 확립된 중국 시아시 전통의 계승자이자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 <References>

1. Chen Xiaobo. "The Research on emotion of DuFu's Poems to His children". *Journal of Gansu social science*, 3, (2011)
2. Chen Yanbin. "The Research on instruction and peculiarity of LuYou's Poems to His Son". *Journal of Xuzhou Educational college*, 16.2, (2001.6)
3. Hu Zhenrong. "The restricted Research on LuYou's Poems to His Son". *Journal of Tianzhong*, 14.6, (1999.12)
4. Ji Yun. *Wenyuange Sikuquanshu Electronic edition*. Shanghai: Shanghairenmin press, 1999
5. Jiang Xianwei. "On the educational thoughts and methods of DuFu's instructive Poems to His Son". *Journal of Chongqing three-gorges university*, 17.5, (2001.5)
6. Ju Gipyong. "A Study on educational poems of DuFu for children; Around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Zhongguowenxue*, 84 (2015.2)
7. Ju Gipyong. *A Study on Poems of LuYou*. Seoul: Yuklak, 2010.6.
8. Kim Changhuan. *Poems of TaoYanMing*. Seoul: Yuanam, 2014.11.

9. Lee Taehyeong. *Ci of XinQiJi*. Seoul: Hankgobang, 2010.4.
10. Lee Yeongju. *Poems of LiTaiBai*. Seoul: Hankgobang, 2015.3.
11. Lim Dohyun. “Li Bai, self pursuit and literary reflection”. *A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8)
12. Liu Jongmok, Song Yongjun. *An Anthology of the Song Dynasty*. Seoul: Snupress, 2009.9.
13. Lu Qinli. *Poems of the First Qin and Han Dynasties,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Beijing: Zhonghuashuju, 1983.
14. Qian Zhonglian. *Annotations of the HanYu' Poems*. Shanghai: Shanghaiguji, 1984
15. Qiu Zhaoao. *Poems of DuFu with note*. Beijing: Zhonghuashuju, 1979.
16. Su Shi. *Poems of SuShi*. Beijing: Zhonghuashuju, 1982.2.
17. Wang Sheliang. “The Research on TaoYanMing’s Poems to His Son”. *Journal of Kaifeng university*, 26.2, (2012.6)
18. Wang Xiaoxiang. *An Anthology of educational Poems of LuYou for children*. Nanjing: Nanjingdaxue, 1988.12.
19. Xu Zhifu. *An Appreciation of ancient and modern famous educational poems for children*. Jilin: Beifangfunertong, 1990.6.
20. Zhao Qijun. “Interpretation of XinQiJi’s Shi Er”. *Journal of Wuxi vocational Institute of Commercial Technology*, 2.4, (2002.12)
21. Zhu Xiaorong. “The Textual Research on HanYu’s Poems to His Son”. *Journal of Social science of Jiamusi university*, 26.4, (2008.5)

<참고문헌>

1. 陳小波, <憐子如何不丈夫—論杜甫兒女詩的情感內涵>, 《甘肅社會科學》,

- 第3期, 2011.
2. 陳延斌, <論陸游的“示訓”教化及其特色>, 《徐州教育學院學報》, 第16卷 2期, 2001.6.
  3. 胡振龍, <陸游示子孫詩管窺>, 《天中學刊》, 第14卷 6期, 1999.12.
  4. 紀昀,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9.
  5. 蔣先偉, <杜甫教子詩的教育思想和教育方法>, 《重慶三峽學院學報》 第17卷 5期, 2001.5.
  6. 주기평, <두보 시아시 연구>, 《中國文學》 84집, 2015.2.
  7. 주기평, 《육유시가연구》, 서울, 역락, 2010.6.
  8. 김창환 역주, 《도연명시집》, 서울, 연암서가, 2014.11.
  9. 이태형 역주, 《신기질사집》, 서울, 학고방, 2010.4.
  10. 이영주 외, 《이태백시집》, 서울, 학고방, 2015.3.
  11. 임도현, 《이백의 자아 추구 양상과 문학적 반영》,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2.8.
  12. 류종목·송용준, 《송시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9.
  13. 逯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
  14. 錢仲聯, 《韓昌黎詩繫年集釋》, 上海古籍出版社, 1984.
  15. 仇兆鰲, 《杜詩詳注》, 北京, 中華書局, 1979.
  16. 蘇軾,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2.2.
  17. 王社良, <陶淵明《責子詩》 意旨探析>, 《開封大學學報》 第26卷 2期, 2012.6.
  18. 王曉祥, 《陸游示兒詩選》,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88.12.
  19. 徐志福, 《古今名人教子詩賞析》, 吉林, 北方婦女兒童出版社, 1990.6.
  20. 趙其鈞, <拳拳憐子情 殷殷報國心——辛棄疾“示兒”詩詞解讀>, 《無錫商業職業技術學院學報》, 第2卷 4期, 2002.12.
  21. 朱曉蓉, <韓愈示兒詩考辨>,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第26卷 4期, 2008.5.

### <Abstract>

This Reports is a study on pedagogy of Chinese poets in Tang-Song Dynasty come through the investigation on educational poems to his son. In China, the tradition of educational poems starts at Han Dynasty. But it's quantity and frequency is not more than educational prose. In Wei-Jin Dynasty, this tradition was established and confirmed owing to TaoQian, LuJi etc. In that Dynasty, The major Purpose and Methods of education is that lead child to grow humanity and moral character, and concentrated on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his' family customs.

In Tang-Song Dynasty, many poets emphasize education through the poem to his child. But In Tang Dynasty, that purpose is on the individual wealth and prosperity, not profess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family custom like in Wei-Jin Dynasty. In Song Dynasty, most of poets success the educational tradition in Wei-Jin Dynasty, stressed to grow humanity and moral character, and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family custom is to be a more important purpose of education.

In the Methods of Education, Tang Dynasty compared with Tang-Song Dynasty. In Tang Dynasty, use the direct education method of recommend and advice. But in Song Dynasty, use the surrounding education method of enlightenment and influence.

Key Words : 시아시(educational poems to one's son), 한유(HanYu), 두보(DuFu), 소식(SuShi), 육유(LuYou), 교육의 원칙과 방법 (pedagogy)

